



어느 날의 '달타령'



임연태 본지 미디어부장

"아빠 달이 왜 자꾸 따라와?" 다섯 살 된 둘째 아들의 질문이다. 나는 잠시 망설인다. "응, 우리 가는 길을 밝혀 주려고."

어린 시절 외가를 다녀오는 길이 저물었을 때, 두둥실 뜬 달은 산길과 들길을 밝혀 주는 따뜻한 가로등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로등이 꺼진 지금, 그 푸르른 향수에서 길어 올린 대답이 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때도 달은 아빠가 운전할 때 해를 집까지 잘 가라고 빛을 내면서 따라오는 거야, 고맙지?"

"응." 국편 전화를 위해 말을 슬쩍 돌린다. 녀석의 동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그 고마움도 잠시. "근데, 달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 누가 운전을 하지?" 이어지는 녀석의 질문에 죽을 맛이다.

"아빠 운전하시는데 방해되거나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역시 아빠는 고마운 존재다.

"그럼 엄마가 대답해줘."

아내는 이런저런 말로 답을 만들어 보지만 녀석의 이어지는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 아, 어려운 국편. 뭔가 돌림이 같은 것이 뇌리를 휩쓸어 지나간다.

"양푹한 질문을 해대는 녀석과 대답의 초점을 맞출 재간이 없는 부모, 누가 더 어리석은 존재인가?"

답답은 아닐까?

최근 중국에서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프로젝트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이며, 중원정부를 대신해 동북 지역을 통치했던 할거정권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1980년대부터 중국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동북공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도 중국사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고대사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12월 9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구려사 왜곡 증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나아가 정부의 유관 부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는 중원 왕조들과는 대립적 위치에 있던 독립왕조였다는 점이다. 중국과는 종족·언어·습속·전통을 달리하는 나라였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은 적도 없었다. 고구려가 중원왕조와 종속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중국측이 강조하는 '조공(朝貢)' 또한 중국과



불자 세상보기

강문호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

도둑 맞고 있는 역사

주변국가가 공존하는 외교수단에 불과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고구려사를 확실한 우리 역사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를 사안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인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그들의 대외인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황제(皇帝) 제도이다. 중국의 군주인 황제는 중국 민중의 군주인 동시에 천하(天下)의 군주라는 개념을 함

추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인들의 민족의식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를 때 '민족'이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함으로써 언어나 풍속 등의 문화내용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민족 개념은 공통의 조상인 단군의 자손이라는 전제 하에 혈통과 문화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중국인들은 중국을 구성하는 55개 민족의 역사와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주장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호 연구와 이해 증진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측 자료를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너지고 있는 역사 교육을 재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역사를 교양선택 과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사회과목의 일부만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사를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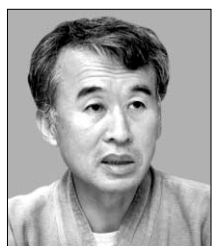
그리고 당면과제는 내년 6월 중국 추저우(遼州)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을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학자들은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공동 답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세계에 알리려 한다. 고구려사 지키기는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귀농운동 8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주민과 화합하는 삶 보여 대중화 실현

젊은층 주체로 생태농업 활성화 시급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이제 우리 농업은 생태적인 농업, 이른바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기상이변과 식량위기, 성장의 한계 앞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친환경농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태농업의 필요성과 기존 관행농업의 차이를 알고, 생태농업을 주도해나갈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후 생태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를 이룰 자연과 공생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현해야 한다.

관행농업의 목적은 공업적 생산양식에 의한 경제가치 곧 상품생산 자체이다. 그러나 생태농업은 자연생태계와 조화하면서 생명을 기르고 살리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다. 환경생태농업을 통해 땅과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순환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귀농만이 농촌과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도농공동체 운동 즉, 먹거리거리를 중심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책 대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태농업 실현조건이 유리한 지역 중심의 생태농업 거점을 마련하고 생태농업의 불씨를 퍼뜨려야 한다.

귀농의 실행, 정착위한 제도화 필요



성여경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농촌의 현실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아니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 귀농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8년간 귀농운동의 근간은 교육 중심이었다.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의 주체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귀농학교 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지금까지 총 3,741명에 이른다.

귀농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자립적 삶과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 식, 주, 교육, 의료 다섯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나 귀농 운동의 본질인 '관심-교육-귀농-정착'의 틀에서 보면 일부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귀농운동의 중심이 교육으로부터 귀농과 정착으로 그 중심을 서서히 이동해나가기다. 귀농의 실행과 귀농자의 정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해, 제도권 안으로 귀농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론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지역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귀농자 모임을 활성화하는 조직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생협매장 등 통한 순환적 소비력 조직



이정호 인드림생명공동체 사무처장

귀농운동 제2기를 맞이 위해선 귀농자간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산자 확보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생협매장과 종교계 시설을 통한 '지역귀농인코너 확보운동'으로 지역 순환적 소비도 절실하다. 또한 토지와 농업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귀농자의 특정한 정착을 위해선 귀농준비 단계의 내실화와 귀농지 선택 및 정착단계에서 생태적·공동체성 강화 등의 귀농자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관한 교육 강화 등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집권적 영농정책 제고와 친환경농업에 입각한 지역경제권 확립, 즉 귀농의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귀농을 통한 행복한 삶'을 보여줘, 귀농운동을 대중화·사회화하는 것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다. 생태적·공동체적 귀농지에서 귀농자들이 자신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보다 인간적이며 여유로우며 보다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지에서 인근의 중소도시 소비자들과 중소규모의 도농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도 정동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이 현실 속에서 구현돼 갈 것이다.

송년회 모임 자비행 실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송년회를 대신해 12월 30일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통일안국사의 선재동자원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중앙신도회는 고급 연회장에서 열던 송년모임을 2001년부터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즐거는 문화에서 회향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군속매

장애인, 국민 누가 문제인가?

국민 10명중 7명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TNS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장애인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변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견이 68.4%나 됐다. 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47.6%, '장애인 노동문제가 심각하다'는 대답이 41.6%에 달했다.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상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은 물질 문명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아래
일시: 2003년 12월 27일(토) 오후 8시부터 2004년 1월 2일(금) 오전 7시까지
장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회비: 일반 8만원
연락처 및 문의처: 017)332-4096 / 02)914-6187
준비물: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16,710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사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란?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닭발, 히알린,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4~8주면 30~50% 호전 단계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제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지(원산지): 미국 수입 완제품
*관장섭취량
1일 3회 1정씩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www.sbtongsang.co.kr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빌딩 3층 서부투상

평당민들이 주면 돈이 바뀝니다 명당유혈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가스바카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운운으로 바뀝니다
재운운 앞길은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에, 재물이 옵니다.
이무리 환기구 노획해도 안되지만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엔 처방해 보십시오.
분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에, 사업, 재물이 옵니다.
신비의 생혈무적 명당유혈방 051)865-9933
전도제 49개의 결번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유혈방은 각 사찰, 암자, 관공관에만 있습니다.
복정어리 복정어리 황금어리 복기막인 복기막인 복기막인 복기막인 복기막인 복기막인